격리의무 해제 등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 현실화하나

정부, 이번주 본격 논의…확진자 감소세 정체로 결정 늦춰질 가능성
광주·전남 일요일 신규 확진 2000명↓…전국 15주만에 3만명 아래
오늘부터 기저질환 12세 이상 확진자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처방

이번 주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조치 등을 담은 일상회복 '안착기' 전환 여부가 집중 논의된다.

지난달 25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최고 단계인 1급에서 홍역, 수두와 같은 2급으로 낮추면서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등은 임시 보류하는 4주간의 '완충지대 이행기'가 오는 22일 종료되기 때문이다.

이행기 이후 안착기에는 1급 감염병 관리의 핵심인 확진자 격리 의무가 없어지면서 본격적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진입하게 된다.

정부는 안착기로 전환 시점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이르면 23일부터 안착기 전환이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새 정부의 '방역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안착하지 못한데다, 확진자 감소세마저 정체·둔화하면서 안착기 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실제 현재 주요 방역 정책에 결정권을 가진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가 공석이거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 방역 전문가들이 가을철 재유행을 경고하고 있고,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에 따른 확진자 재증가와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질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역당국은 일단 이 번주까지 최근 확진자 수 추이, 의료여력 등을 기준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안착기 진입 가능 여부를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안착기 진입 판단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정할지 논의하고 있다"며 "확진자 수와 병상 등 의료대응 여력, 향후 유행추이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16일부터는 코로나19 먹는치료제인 화이자의 '팍스로비드'와 머크앤드컴퍼니(MSD)의 '라게브리오'의 처방 대상을 각각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18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확대한다.

한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는 정체 속 느린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광주·전남지역 신규 확진자는 각각 696명과 1125명 등 1821명을 기록했다.

전남에선 지역별로 순천 204명, 여수 149명, 광양 116명, 목포 113명 등 22개 모든 시군에서 확진자가 나왔으며, 강진, 진도 등 일부 시군은 한 자릿수로 줄었다.

전국적으로도 이날 3만명 미만(2만 5434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감소세를 유지했다. 일요일(발표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3만명 미만인 것은 지난 1월 30일(1만 7522명) 이후 15주 만이다.

전국 하루 신규 확진자 규모는 지난 4일 이후 12일째 5만명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정은, 최대 비상방역체계 가동실태 점검 협의회 소집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이 최대 비상방역체계의 가동실태를 점검하고 정치 실무적 대책들을 보강하기 위해 14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협의회를 소집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 코로나 신규발열자 30만 육박·누적 42명 사망

치료법 몰라 숨진 사람 늘어
발열자 82만명 중 32만명 치료중

북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세가 빨라지는 가운데 14일 신규 발열자가 30만명에 육박했다. 사망자도 15명이 발생해 현재까지 42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치료법을 몰라 약물사용 부주의로 숨진 사람들이 많았다.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는 지난 13일 저녁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 전국적으로 29만6180여명의 유열자(발열자)가 새로 발생했으며 15명이 사망했다고 15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밝혔다.

지난달 말부터 14일 오후 6시 현재까지 북한 전역의 발열자는 82만620여명이며 이 가운데 49만6030여명이 완쾌됐고, 32만4550여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누적 사망자 수는 42명이다.

앞서 북한은 12일 1만8000여명의 발열 환자가 발생했고 13일 17만4400여명의 발열자가 신규로 발생했다고 보도했던 점을 고려하면 확산세가 가파르다.

특히 북한 관영매체는 여전히 '확진자'가 아닌 '유열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자가검사키트와 유전자증폭(PCR) 검사 물자가 없어 몇 명이나 확진됐는지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앙통신은 "현 방역위기가 발생한 때로부터 사람들이 스텔스 오미크론변이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하고 치료 방법을 잘 알지 못한데로부터 약물 사용 부주의로 인한 사망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전국의 모든 도, 시, 군들이 지난 5월 12일 오전부터 지역별로 완전히 봉쇄되고 사업단위, 생산단위, 거주단위별로 격폐 된데 이어 엄격한 전주민 집중 검병검진이 진행되고 있다"며 현재까지 134만9000여명이 위생선전과 검병검진, 치료사업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전국의 치료예방기관에는 의약품이 긴급 공수되고 있다.

당 중앙위원회 부서 일군(간부)들과 성·중앙기관 정무원 등 지도층이 개인적으로 구비한 여유약품 기부에 나섰다.

/연합뉴스

전남 대표 여행상품 '남도한바퀴' 인기몰이

특화된 테마로 코스 구성
예매 첫날부터 문의 폭주

전남도의 대표 여행상품인 광역 순환버스 '남도한바퀴'가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로 운행을 재개함에 따라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일부 노선은 며칠 만에 매진되는 등 높은 인기를 실감하고 있다.

지난 7일 재개한 남도한바퀴는 광양 배알도 공원, 곡성 도림사, 강진 백운동원림, 구례 천은사, 장성 축령산 편백숲 등 힐링코스와, 비대면 관광지와 유엔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된 신안 퍼플섬을 비롯해 목포 해상 케이블카, 순천만국가정원 등 핫플레이스 코스 등을 다채롭게 엄선해 구성했다.

광주 유스퀘어와 광주송정역에서 출발해 타 지역에서 오는 관광객도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인기를 누리고 있다.

여기에 각 관광지마다 그 지역 문화관광해설사가 재미있는 설명과 안내를 해 관광객에게 관광지의 역사나 문화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

박용학 전남도 관광과장은 "일상회복과 전남 방문의 해에 따른 관광 수요에 발맞춰 할인판매 등 적극적 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라며 "바다, 섬, 예술, 힐링 등 전남의 특화된 테마로 기억에 남고 다시 찾는 여행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도한바퀴는 코로나19 이전 한해 평균 2만5000여 명이 이용하는 등 여행객에게 많은 인기를 모았던 전남 대표하는 명품 여행상품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방탄복 입고 뉴욕주 슈퍼마켓서 무차별 총격…10명 사망

주말인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주의 한 슈퍼마켓에 방탄복을 입은 괴한이 들이닥쳐 총기를 난사해 10명이 숨지는 참극이 벌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용의자를 체포하고 백인우월주의와의 관련성 여부 등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AP통신과 NBC뉴욕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께 뉴욕주 북부 버펄로의 슈퍼마켓에 군복 스타일의 옷에 방탄복까지 입은 괴한이 소총을 갖고 들어와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

이 괴한은 총격 범행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수사 당국은 보고 있다.

버펄로 시장은 13명이 총격을 받았고, 이 중 1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소총 2정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직후 슈퍼마켓 주차장에 들어온 목격자 브래딘 케파트(20)와 셰인 힐(20)은 지역 매체에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군복 차림의 백인 남성이 검은색 헬멧을 쓴 채 소총을 들고 슈퍼마켓을 빠져나오는 장면을 봤다고 전했다.

케파트는 "그 남성은 자신의 턱에 총을 대고 서 있었다"면서 "그는 헬멧을 벗고 총을 떨어뜨린 뒤 경찰에 제압됐다"고 말했다.

이날 사건뿐 아니라 전날 밤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도 미국프로농구(NBA) 동부콘퍼런스 준결승 6차전이 끝난 뒤 경기장 인근에서 세 건의 총격으로 모두 21명이 다치는 등 미국 곳곳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지분·부동산·삽니다
(주)오천경매. 010-3605-5000

2022학년도 후기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미래 산업발전을 견인해 나갈 고급 인재 양성!
야간과정 운영(주 1~2회, PM 7시~11시)

지역의 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지식 창조 대학원
- 정규 석사학위 취득 후 박사과정 진학 가능
- 학점이수(30학점)로 석사학위 취득 가능(無논문제 시행)
- 본인 업무와 연관된 주제의 학위논문 작성으로 실용적 연구능력 함양과 특허출원 가능
- 졸업 후 관련분야 연구 및 과제 수행으로 산학간 연구네트워크 구축

융복합 시대에 걸맞은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창의적 공학설계, 공학프로그램 등 혁신적인 교육 과정 시스템 운영
- 첨단기자재를 활용한 효과적인 학습자 중심의 교육 실시

전형일정

구 분	일 시 (기 간)	장소 및 안내사항
입학원서 작성 (인터넷으로만 작성)	2022. 6. 7.(화) 09:00 ~ 6. 16.(목) 18:00	• 산업대학원 홈페이지(http://gsit.jnu.ac.kr) 원서 작성(입력) 후 원서 등을 출력
구비서류 제출 (직접방문 또는 우편 제출)	2022. 6. 7.(화) 09:00 ~ 6. 16.(목) 18:00	• 제출장소 : 산업대학원 행정실 (공과대학 4호관 202호) • 제출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우)61186 • 출력한 입학원서를 포함한 제출 서류 및 전형료 납부 영수증을 제출
전 형 일 시	2022. 6. 28.(화) 10:00	• 지원학과(전공)에서 지정한 장소 (신분증 반드시 지참)
합격자 발표	2022. 7. 15.(금) 예정	• 산업대학원 홈페이지

모집학과(전공)
건축공학과/기계공학과/산업공학과/재료공학과/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토목공학과/화학공학과/환경에너지공학과/친환경농업학과/식품공학과/지역환경자원공학과/전자컴퓨터공학과(계약학과)

문의 |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 전화 062-530-1607 · 팩스 062-530-1942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gsit.jnu.ac.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풍수 사주 수강생 수시 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 강(6개월 과정)
일 시 : 2022. 5. 3 (화) 오후7시
장 소 :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 산수오거리 → 무등산방향입구 우측2층)
수강료 : 풍수 + 사주 20만원 (매월)

공개강좌(무료)
일 시 : 2022. 4. 26 (화) 오후7시
장 소 :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대 상 : 누구나 (선착순○○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 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맥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2246-1508

중앙신용

꼭! 받아야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3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24시간 상담가능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